

공기청정기 30초에 한대
 얼음정수기 56초에 한대
 정수기 필터 1초에 하나

“누구보다 깐깐하고 빠르고 완벽하게”

Q 르포

코웨이 충남 유구공장을 가다



충남 공주 유구농공단지에 있는 코웨이 공장 전경. 공장 옆에는 대규모 물류센터도 있다.

**축구장 6배 넓이 유구공장 가동
 공기청정기 등 年 151만대 생산
 근무자 절반정도 지역주민 채용
 정전기·방진 등 테스트도 진행**

통상 ‘포드시스템’으로도 불리는 컨베이어 생산방식이 생산성과 작업효율성에서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런데 유구공장에선 공기청정기를 한 명의 작업자가 조립부터 검사, 제품 완성까지 도맡아하는 ‘셀라인(CELL-LINE)’ 생산방식을 일부에 적용하고 있다. 유구공장 이승영 차장은 “셀라인 방식에선 2평 정도의 공간에서 다기능 기

술을 보유한 1명의 작업자가 협력업체에서 1차조립을 끝낸 제품을 2차 조립부터 각종 테스트, 완제품 조립까지 전공정을 담당하게 된다”면서 “셀라인 생산은 모델 전환이 쉬워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경쟁사와 비교해 약 2배의 생산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4개의 셀에선 하루 최대 1000대의 공기청정기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물론 라인 한 쪽엔 10kg 이상의 무거운 대형제품 생산을 위한 셀라인도 별도로 갖춰놓고 있다.

또다른 라인에선 카운터탑 형태의 얼음정수기 조립이 한창이다.

얼음정수기나 정수기의 경우 테스트는 100% 자동화가 돼 있지만 조립, 용접, 가스주입, 테스트 준비 등은 직접 사람의 손을 거쳐야한다. 이때문에 생산라인별로 적지 않은 12~17명 가량이 배치돼 각각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코웨이는 가전제품 제조공정 최초로 NFC기반의 무인 오토 체크 시스템을 도입해 정수기와 관련한 52개 항목을 테스트해 불량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또 정수기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누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선 직접 물을 사용해 시험을 해야하지만 유구공장에선 2011년부터 아예 물을 없앴다.

정수기를 테스트할 때 물을 사용하다 보니 유통과정에서 미생물이 번식하거나 겨울철엔 결빙이 돼 동파가 되는 등 역효과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코웨이는 물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검토한 결과 ‘질소+진공’을 정수기 테스트 과정에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물 없는 정수기 테스트’를 시작하면서 검출력은 2배 가량 높아졌고, 연간 1320t에 달하는 물도 절약할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뒀다.

정수기의 생명은 뭐니뭐니해도 필터다. 중공사막식보다 정수능력이 뛰어난 역삼투압방식을 생산하는 코웨이의 정수기에는 두 개의 카본 필터와 RO멤브레인 필터, 그리고 항균 필터가 들어간다.

유구공장에선 이 가운데 첫 번째와 세 번째에 들어가는 프리카본 필터(네오센스 카본)와 포스트 카본 필터(이노센스 카본)를 생산한다.

카본 필터는 수도물에 들어있는 소독약을 없애고 물 맛을 좋게하는 기능을 한다.

유구공장엔 생산시설 외에도 신뢰성 시험실과 국제안전인증센터도 갖춰놓고 다양한 시험과 해외 수출을 위한 인증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인증센터에만 약 250개의 각종 장치들이 있어 낙뢰시험, 전압변동시험, 간섭시험, 정전기시험, 대기전력시험, 방진·방수 시험 등 각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 1위 기업의 생산공장은 기자가 들고간 카메라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제품도, 관리도 깐깐한 모습이었다.

/충남 공주=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공기청정기 30초에 한대, 얼음정수기 56초에 한대, 정수기 필터 1초에 하나씩...’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생활환경가전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코웨이 충남 공주 유구공장의 생산 능력은 가히 놀라웠다.

공기청정기는 봄, 얼음정수기는 초여름 등 제품들마다 대목이 있지만 기자가 찾아간 11월 말의 공장 풍경은 마치 계절을 앞둔 것처럼 사람이나 기계나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축구장 약 6배 넓이인 코웨이 유구공장은 1994년 9월 준공해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1989년 당시 웅진그룹이 웅진코웨이를 설립하고 방문판매와 렌탈방식을 접목, 유통에 혁신을 꾀하고 회사가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유구공장은 25년 가까운 세월동안 생산기지로써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오고 있다.

코웨이 유구공장이 있는 유구농공단지를 가기위해 지나친 유구읍내에는 그룹사 태로 웅진그룹의 품을 떠났다 최근 웅진이 다시 사들이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환영한다는 플래카드가 곳곳 붙어있었다.

‘웅진’은 백제시대 공주의 옛 이름이다. 공주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고향이기도하다.

코웨이는 현재 국내에선 유구공장 외에 인천공장, 포천공장도 가동하고 있다. 물론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등을 연간 151만대 생산할 수 있는 유구공장의 규모가 가장 크다. 이곳은 정수기 필터에 들어가는 프리카본 필터나 포스트 카본 필터 등 관련 부품도 연간 3735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2011년에는 공장 바로 옆에 대형 물류센터인 ‘유구 Hub-DC’도 준공해 전국 배송이 가능한 물류네트워크도 구축했다.

생산과 물류가 집약된 공주 유구공장이 코웨이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공장에는 현재 생산직 210명과 연구원 50명을 포함해 320명이 근무하고 있다. 예전엔 70~80%가 지역주민이었지만 지금은 절반 정도가 현지인으로 과거보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

유구공장 공장관리팀 김관순 부장의 설명이다.



숙련된 기술자가 검사부터 완제품 조립까지 하는 코웨이 유구공장의 셀라인과 완성된 공기청정기가 보인다.

/코웨이

35세 이상 출산여성, 골다공증 위험 ‘3배’

폐경여성 1328명 출산 연령 분석

출산횟수 4회 이상 여성도 3배 높아

35세 이상 나이에 마지막 출산을 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폐경 후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최대 3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산부인과 위지선·길기철 교수 연구팀은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등록된 폐경여성 4546명 중 연구대상자로 적합한 1328명을 추려 출산 시 연령과 골다공증

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폐경 여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대상자의 35.24%(468명)로, 3명 중 1명꼴이었다.

특히 출산 횟수가 많고 마지막 출산연령이 높을수록 골다공증 유병률이 높았다. 출산을 4회 이상 하거나 마지막 출산이 35세 이후인 여성은 골다공증 위험이 최대 3배 규모로 커졌다.

위 교수는 “출산 횟수가 4회 이상인 여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약 60%로 1~2회 출산한 여성(20%)에 비해 3배 높았다”며

“35세 이후에 마지막 출산을 했을 경우에도 20대에 마지막 출산을 한 여성에 비해 골다공증 위험이 3배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폐경기 골다공증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미리 적절한 칼슘을 섭취하는 등의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골다공증학회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골다공증으로 고관절이 골절된 50세 이상 환자 17.4%는 최초 골절 발생 후 1년 이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

시몬스침대 불에 안타는 매트리스 프로모션 진행

시몬스는 ‘난연 매트리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한국 시몬스는 최근 국내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자체 생산돼 유통되는 일반 가정용 매트리스 전 제품을 난연 매트리스로 개발, 출시한 바 있다. 판매가의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난연 매트리스 프로모션은 이달 말까지

전국 시몬스 직영 갤러리 및 백화점 매장에서 진행된다.

난연 매트리스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매트리스로 화재시 대비 시간을 확보해 대형 화재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국 시몬스 침대가 개발한 난연 매트리스는 일반 가정용 매트리스 전종을 국

제표준규격(ISO 12949)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국내 표준시험방법(KS F ISO 12949)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

한국 시몬스 침대의 난연 매트리스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탁월한 화재 안전성을 가진 신소재 ‘맥시멈 세이프티 패딩’을 사용했으며, 특허 출원도 끝냈다.

시몬스의 난연 매트리스는 현재 예약 판매 중으로 3일부터 구매고객에게 순차적으로 배송된다.

/김승호 기자



권혁은 아이에스동서 회장이 대구시에 2억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지난 30일 열린 전달식에서 (왼쪽부터)이희정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권혁은 회장, 권영진 대구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이에스동서

대구에 또 2억... 권혁은 회장의 ‘나눔실천’

(아이에스동서)

권혁은 아이에스동서 회장의 나눔 실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아이에스동서는 권 회장이 대구지역 취약 계층을 위한 집수리에 써달라며 지난달 30일 대구시에 2억원의 이웃사랑성금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경북 의성이 고향인 권 회장은 대구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공부한 향토 기업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에 아파트 사업을 시작하면서 연말에 지역의 불우이웃을 위해 매년 성금을 기부한다는 것은 드문

사례로 이는 향토출신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권 회장의 기부는 지역에 진출하는 역외기업들의 모범사례로 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권 회장이 대구시에 전달한 성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노후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공부방 설립 기금 후원,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실천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